

시론



주홍
자유예술가

“엄마, 걱정마! 교련복 입고 있으면 학생인 줄 알고 총 안쓴다고 한게 걱정마소잉~”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1980년 5월26일 교련복을 입고 전남도청에 남았다고 한다.

우리는 1980년 5월18일을 기념일로 정하고 전야제 행사를 한다. 그런데 5월27일 새벽 최후의 항전을 기억해야 한다. 죽음을 예감하고도 옛도청에 남아 끝까지 군부쿠데타에 저항했던 시민군들, 그 새벽 계엄군의 총에 희생된 분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 당시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는 말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패배하지만,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 그는 청소년과 학생들을 집으로 보내며 “너희들은 집으로 가라. 살아남아서 역사의 증인이 되라”고 했다. 그들은 최후의 항전에서 목숨을 바쳤다. 그리고 살아남은 시민군들은 잡

1980년 5월27일 새벽 단팔빵

혀가 악랄한 고문을 당했다.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으로 지옥같은 시간을 보내며 5·18진상규명 투쟁을 이어갔다. 전두환 독재는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미명하에 민주인사들과 학생들을 가두고 고문했다. 1987년 6·10항쟁까지 몸을 뿌리며 민주주의를 외치다가 산화한 열사들과 남영동에 잡혀가 고문에 의해 고통받고 의문사한 열사들, 이제 그 끔찍한 고문의 장소, 남영동 대공본실이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재탄생했다고 한다.

지난 2024년 5월, 44년 동안 5월27일 새벽 민주광장에서 오월 영령들을 기리는 예술인들과 시민들이 있었다.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의식을 행하며 밤을 새웠던 새벽광장의 예술인들이 ‘5·27승리의 날-새벽광장’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함께하는 마당을 열었다. 2024년 5월26일 밤은 비가 오고 거센 바람이 불다가 밤 10시께 드라마틱하게 그쳤다. 그리고 순조롭게 예술마당이 펼쳐졌다.

그리고 올해 5월, 2025년 5·27승리의날-새벽광장’에 예술인들과 시민이 모였고, 다양한 추모예술행사가 열렸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고, 모두 자발적으로 준비하고 참여했다. 광주시민들은 물론 대구시민 19명이 함께했다. 화가들은 그림을 그렸고 춤꾼은 춤을 추고, 가수는 창작곡을 불렀다. 한참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어떤 시민이 보냈다는 단팔빵

을 나눠줬다. 새벽광장에서 단팔빵을 한 입 먹다가 눈물이났다.

단팔빵! 1980년 5월26일 전남도청 최후의 항쟁에 남은 시민군에게 마지막으로 나눠 준 간식이 단팔빵이다. 1980년 5월27일 아침 계엄군의 진압 직후, 외신기자 노먼 소프가 찍은 도청 사진속에는 교련복을 입은 안종필, 문제학 2명의 고등학생 시신이 2층 복도에 있다. 시신결에는 먹다 남은 단팔빵이 떨어져 있었다. 그 달콤한 단팔빵도 다 먹지 못하고 계엄군의 총에 죽은 고등학생. 그 사진을 본 수목화가 김호석 선생은 단팔빵을 자제히 그리고 멀리 교련복 입은 학생의 죽음을 그려서 그 참혹함을 극대화시켰다. 한편 그 고등학생의 죽음을 다룬 소설 ‘소년이 온다’를 쓴 한강 작가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해 5·18의 진실을 세계에 알렸다.

그리고 5월27일 광주의 새벽을 기억하는 전국의 예술인들이 민주광장에 모여 승리의 역사로 만든 10일간의 대중세상과 최후의 항쟁을 영감의 원천삼아 창작하며 시민군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스스로 광장지기라 부르며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민주광장에서 시대 정신으로 함께 연대한다. 과거가 현재를 구했듯이, 오늘의 역사가 내일을 구할 수 있도록, 달콤한 단팔빵을 나눠 먹으며 승리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눈물 흘린다.

문화난장



김영순
광주문화재단 전문위원

G-ACC라 명명한 이유가 있다. ACC(국립아시아문화전당)가 외딴 섬이어서 안된다는 지점에서 출발한다. 광주(Gwangju)에 더 녹아들고 세계(Global)로 뻗어나가야 한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G-ACC라 했다. 이제명 대통령 정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 시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2031년 종료를 앞둔 지금, 명실상부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전략수립이 당면과제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휴먼웨어 등 세 측면에서 실현 가능한 몇 가지 사업을 제안한다. 아시아 및 세계 문화예술 인재들을 광주로 유입할 ‘AC C 국제아트스쿨’ 설립, ‘ACC 아트 프라이즈 (Art Prize)’ 그리고 지하공간이라는 ACC의 장소 특성을 반영한 ‘플로팅 아트’과 LED 미디어폴 설치 등이다.

첫째, ‘ACC 국제 아트스쿨’을 제안한다. 한예종 광주캠퍼스를 뛰어넘는, 국제화된 개방형 교육기관이어야 한다. ACC가 창작자와 기획자를 육성하는 문화교육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아시아 및 세계의 젊은 문화예술인들을 광주로 유치할 전략이 필요하다.

G-ACC,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 시대를 열며

지역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일정 학기 또는 학점을 ACC에서 이수하도록 유도하고, 학점 공유와 인정제를 통해 외국 대학생들이 부담 없이 ACC의 커리큘럼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대상을 학생과 일반으로 구분하고 기간 또한 1년제, 2년제 등으로 다각화할 수 있다. 지역 대학 기숙사를 활용하고, 수업은 AI 통번역을 병행하면 효율적인 운영도 가능하다. 더불어 이들이 우지공원 개방형 아레나 등에서 K-콘텐츠를 활용해 직접 무대를 꾸미고 공연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 조만간 추진될 국립현대미술관 광주분관, 국회도서관 광주분관, 한류디지털콘텐츠 타운 등과도 연계가 가능하다.

둘째, ‘ACC 아트 프라이즈’를 제안한다. 경쟁력 있는 창작자를 발굴하고 역량 있는 콘텐츠를 ACC로 유입하는 플랫폼 기능이 가능하다.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토니상 6관왕의 쾌거를 이루며 한국 뮤지컬의 K 한류 물꼬를 댔다. 이같은 성공적인 흐름을 ACC에도 구조화하기 위해 ACC아트 프라이즈의 도입이 필요하다. 지난 해 신설된 ‘ACC 미래상’의 확장 개념으로 각 예술 분야의 상을 각각 제정해보겠다. 예술계의 토니(연극), 맨부커(문학), 프리츠커(건축)상과 같은 권위 있는 상을 ACC 버전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미국 미시간 주 그랜드 래피드시의 ‘ArtPrize’처럼 공개 투표 방식의 심사 제도를 도입하면 참여의 역동성과 흥행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이 상들은 단순한 공모전이 아니라 ACC의 길러콘텐츠 확보 방

안이 될 수 있다.

셋째, LED미디어 폴 설치와 ‘플로팅 아트 (Floating art)’ 도입을 제안한다. 현재 ACC는 지하 공간이라는 장소 특성상 내부 활동이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미디어 폴을 통해 실시간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ACC를 살아 꿈틀거리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 또한 공중에 뜨는 플로팅 아트를 설치하면 지하라는 공간의 한계성을 오히려 장점으로 부각시킬 수 있다. 미국의 포이틱 키네틱스(Poetic Kinetics)라는 세계적인 사례를 참고하면 된다. ACC마당과 하늘마당을 계절별, 주제별로 변화하는 플로팅 아트 공간으로 꾸미면 시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시각적 즐거움과 문화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밤에는 조명과 영상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형태로 ACC를 광주의 ‘문화 심장부’로 재정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충장아시아문화축제’를 제안한다. 축제의 컨셉을 기존의 레트로에서 아시아로 확장함으로써 ACC 부근 일대에서 벌어지는 장소적 특성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이점을 최대한 축제에 반영해야 한다. 퍼레이드 때도 아시아각국의 특성을 반영한 행진으로 탈바꿈시키면 축제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

ACC는 국립기관이며 국제적인 문화창작 발전소다. 더불어 예술성과 대중성이 함께 꽃피워져야 할 공간이다. 필자의 제안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온 창작발전소, 길러콘텐츠, 문화를 통한 먹거리 창출 등 ACC 핵심 성공 과제 달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생명을 살리는 가장 빠른 손길

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현장에 있는 사람, 즉 ‘여러분’의 손길이 생사를 가를 수도 있다.

현장응급처치란,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가장 먼저 실시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말한다. 특히 심정지(CPR)의 경우, 환자가 쓰러진 후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지면 생존 가능성이 2~3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구급차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전남의 지리적 특성상 5분 이내 도착이 어려운 지역이 많다. 그 몇 분의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여러분이다.

최근에는 자동심장충격기(AED)와 같은 장비도 공공시설 곳곳에 비치돼 있다. 그리

다 중요한 것은 장비보다도 사람의 손, 그리고 용기 있는 행동이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데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올바른 지식과 연습 그리고 나서겠다는 마음이면 충분하다.

군민들의 손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 평소 응급처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체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담양 소방서는 군민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

여러분이 배운 그 한 번의 심폐소생술, 하임리히법, 한 번의 지혈법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희망이 될 수 있다. 골든타임은 소방이 아닌,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説

국가 컨트롤타워 ‘기후에너지부’ 에너지수도 전남에

전남도와 나주시가 새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될 기후에너지부 유치를 선언했다. 장소는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등이 위치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다. 김영록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기후위기가 미래세대 생존까지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최적화된 실행 거점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듯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컨트롤타워가 시급하다. 지금의 구조론 기후는 에너지 분야는 세계적 흐름에 부응하기 쉽지 않다. 부처에 흠어진 관련 기능을 통합해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이다. 기업 불확실성을 견디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 이익 공유 등 주민 참여를 위한 시책을 개발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음주 출범할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구체 밀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위는 사실상 인수위원회를 대신하는 것으로 60일 내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로드맵을 마련한다.

전남권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1천176GW로 전국(7천333GW)의 16%를 차지해 1위다. 국내 최고 태양광 단지를 비롯해 82기가와트(GW) 규

모의 세계 최대 신안 해상풍력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또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와 함께 여수국가산단·묘도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해양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국가해양생태공원과 블루카본 바다숲 등 플랫폼도 준비하고 있다.

나주 혁신도시에는 전력산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핵심 공기업이 위치해 협업에도 매우 유리하다. 에너지밸리를 통해 산·학·연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RE100(재생에너지 100%)산단을 표방한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순조롭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인재 양성과 기술 혁신의 산실로 활용 가능하다.

전남은 명실상부 에너지수도다. 지구온난화, 해수면 상승, 태풍, 가뭄 등 기후위기 해결 방안을 모색할 역량과 의지를 갖추고 있다. 기후에너지부의 최고 적지다. 단순한 지방 분산이나 지역 안배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정책의 실천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선택이 될 것이다.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이끌고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결단이다. 새 정부 국정 철학 구현의 모범 사례로 충분하다. 기후변화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해온 전남이 주목받는 것이다.

광주 지하철 공사 지연 시민 불편 최소화가 최우선

광주 지하철 2호선 1단계 개통이 또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2027년으로 1년 늦춰질 전망이다. 이는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됐다. 장기화된 공사에 교통 불편은 물론이고 안전사고 위험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전체 공정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노력을 당부하는 바다.

모든 공구에서 다수의 알반이 발견돼 설계 변경이 불가피해지는 바람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전체 공정률은 6월 기준 63.3%에 머물렀다. 이달 내 마무리될 토목 부문도 90.7%다. 건축, 전기, 통신, 신호 등 다음 순서가 속속 미뤄지고 있다. 애초 계획대로면 올해 말까지 완공하고 시운전을 거쳐 2026년 12월 정식 운행해야 했다. 광주시는 공정 초기 단계부터 문제가 돌출했다며 재조정 작업을 마치고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지연된 구간에 대해 집중 관리로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공사 비용 및 인건비 상승, 안전 설계 확대 반영 등으로 인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까지 악재가 겹치고 있다. 광주의 미래를 위한 ‘대자보(대중

교통·자전거·보행) 도시’ 구상과 연계되는 등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도 맞물려 있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개통일을 맞추려다 사고 등에 노출될 수 있다. 과거에도 도로 완전 복구 시기를 선불리 약속했다가 일정이 지연된 전례가 있다. 이번에는 분석을 보다 정밀하게 하고 합당한 시점을 제시해야 한다.

인도 바로 옆으로 중장비가 수시로 다니고, 길도 울퉁불퉁해 통행을 가로막고 있다. 도로 사정도 마찬가지다. 차선이 뒤엉켜 잘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자주 바뀌어 차량이 아슬아슬 비켜간다. 보행자도 운전자도 불만이 많다. 공사 현장 인근의 가게들도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소연이다. 대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하철 2호선 1단계는 2019년 착공했다. 수년 간 교통 정체, 소음 등 관련 민원이 속출해왔다.

안전적인 공사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 합당한 대안을 내야 한다. 광주시가 현재 상황을 폭넓게 공유하고 이해부터 구해야 하는 것이다.

다카시 광장

북두칠화

황찬호



꽃이 아니야 별이야
꽃으로 피어난 별
북두칠화
별은 꽃이 되고
꽃은 별이 되었다

※시작노트
별처럼 반짝이는 꽃
꽃처럼 향기로운 별
꽃처럼 별처럼
그렇게 살고싶다
낮에는 꽃이되고
밤에는 별이되는
이런 아름다운 삶

/광주다카시인협회 제공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료인 감리 및 그 실선요금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